

제4강 죽음, 끝이 아니다 2

2. 임사체험자의 증언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최근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영어로 'Near-Death-Experiences' 라고 부르는 임사체험(臨死體驗)은 한마디로 임상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았다가, 얼마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되살아나 그 기간 동안 겪은 경험을 말한다. 임사체험 연구는 서양에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에 수천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체험 사례가 수집되었고 국제임사체험 학회까지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1975년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 교수가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을 출간한 이후 많은 전문가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사체험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렵풋이나마 희미한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정도 그리 믿을 게 못 된다는 주장이 임사체험자들의 증언 이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설득력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통점들이 많고, 하나같이 임사체험 이후에 현재의 삶을 한층 소중히 여기며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에 전념하는 등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임사체험자의 증언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임사체험자는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 자기의 육신을 허공에서 내려다본다. 이들의 의식은 분명하고 생생하게 깨어 있다. 자기가 죽었다는 의사의 판정을 직접 듣기도 한다. 체험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단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임을 경험한다.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임사체험자는 자신의 육신과 함께 주위 환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래전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마취제가 몸에 닿고 이어서 공중을 떠돌다가 침대 위에서 나의 시신을 내려다보면서 내 몸에서 빠져나온 나 자신을 발견한 기억이 있다. 나는 단지 머리와 눈만 있었던 것으로 의식되고 몸을 가졌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나는 저 공간 위에 떠 있는 듯했고 단지 내 마음만 움직였다. 몸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내 머리 같은 것만 공간에 떠 있었다. 나는 오직 마음뿐이었다. 아무런 중력도 느끼지 않았고 아무것도 지닌 게 없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가족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는 가족에게 자기는 괜찮다고 말을 건넬 수가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어느 여성은 심장병 전문의 마이클 세봄에게 자신이 병실 천장 근처의 한 지점에서 자기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게 나는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뜻을 전할 수가 없어서 크게 슬펐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임사체험자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의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공중에 뜬 상태에서 방 안 저 아래에서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기도 한다.

둘째,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임사체험자는 칠혹같이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하는 듯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 삶과는 다른 현실, 다른 세계를 만난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차원 없는 공간을 떠다니기도 하고 급속도로 터널을 지나기도 한다. 흔히 ‘저승’ 이라고 불리는 세계로, 살아 있을 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다.

“나는 외계의 공간 같은 곳에 있었다. 그곳은 절대적으로 캄캄한 곳으로 나는 터널의 끝에 있는 출구 같은 곳을 향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저 끝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놓인 위치와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는 수직으로 세워져 출구를 향해 끌려 당겨지고 있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꿈은 그런 식으로 꾸어지지 않는다.”

셋째, 임사체험자는 빛의 존재를 만난다. 체험자마다 빛의 존재를 예수, 붓다, 보살, 마리아 등 다양하게 증언하지만, 체험자의 종교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임사체험자는 사랑으로 감싸는 빛의 존재와 함께 있으면서 온몸으로 축복을 가득 느낀다. 빛의 존재와 나누는 대화는 말이 아니라,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의사소통한다. 어린이의 임사체험을 집중 연구한 멜빈 모어스에 따르면, 임사체험을 한 거의 모든 어린이의 체험에 빛의 존재가 등장한다. 육신에서 벗어난 이후 또는 터널 쪽으로 여행한 다음, 임사체험의 마지막 단계에 빛이 나타난다고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증언한다.

“그리고 나서 점차 저 멀리,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 흰 빛을 볼 수 있을 때쯤에는 터널의 끝에 도달할 거예요……. 이 빛은 터널 끝을 가득 채우고 있죠. 점차 빛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나아감에 따라 그 빛은 갈수록 커집니다……. 지극히 밝은 빛으로 근접할수록 터널의 끝이란 느낌은 없고 빛에 더욱 빠져들게 돼요. 이제, 터널은 뒤에 있고 앞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파랗고 하얀 빛이 있어요. 너무나 밝아서 단숨에 눈이 멀어 버릴 것 같지만 결코 눈을 해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밝아요. 빛을 만났을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 행복했어요. 또 그 빛은 전혀 눈이 부시지도 않았구요. 그 빛과 분리된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빛이었고 빛과 하나였어요.”

넷째, 임사체험자들의 다양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 ‘파노라마처럼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갑자기 등장한 빛의 존재와 함께 체험자는 자기 삶에서 일생 동안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영상 이미지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되돌아본다. 자기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회상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저절로 내려진다.

“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한 순간에 되살아났다……. 내가 행한 수많은 일들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영향마저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내 눈 앞에 나의 삶이 펼쳐졌다. 내가 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 하나하나가 다시 느껴졌다. 그러한 감정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또 내가 행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직접 보았다.”

다섯째, 돌연 어떤 장벽이나 경계선 같은 것에 도달한다. 몇몇은 먼저 죽은 친척이나 친구와 만나기도 한다. 임사체험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때로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삶의 목적을 위해, 때로는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으로 자기 육신과 이승의 삶으로 되돌아와 복귀한다.

여섯째,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임사체험을 겪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살아난 체험자들은 이전의 삶과는 크게 다른 식으로 삶을 영위한다. 대다수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임사체험자들이 크게 바뀐다. 체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다. 또 체험 이전보다 훨씬 관대해지고 주변에 사랑을 베풀며 영혼이나 영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삶과 죽음을 보는 방식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죽음을 한층 깊이 받아들일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의 중요성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질적 향락을 덜 추구하고 영적인 차원과 영적인 의미에 대한 확신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겁을 먹는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까 의심하거나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미소짓곤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 당시 일어났던 것은 전에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경험이었다. 그 체험을 통해 나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도 나의 이런 확신을 뒤흔들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곳은 평화로웠고 두렵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그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세계만 하더라도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 한두 번쯤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체험을 통해 답을 얻었다. 그렇다,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한다! 게다가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당신이 그곳을 알기만 하면 그곳에 비견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된다. 당신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3. 종교의 가르침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세상의 생명과 사후의 생명은 예를 들어 서양 고전음악에서 서곡(序曲)과 그에 이어지는 오페라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종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인 채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초월해 부활한 것처럼, 사후에 천국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다 함께 신의 무한한 사랑에 감싸인 채 삶을 계속 이어가리라는 희망이 기독교 신앙의 근저에 있다.

따라서 성경은 죽음에 관해 체념하는 식의 가라앉은 말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한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5)

예수의 이 말은 죽음에 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위안으로 가득 찬 메아리로 울려 퍼지리라고 생각된다.

인도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니르말 흐리다이’ (‘순결한 마음의 장소’ 라는 뜻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를 짓기도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누구보다 많이 보신 분이다. 테레

사 수녀는 그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수녀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두렵기 때문에 죽기 싫어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라는 식의 자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죽어가는 사례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입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은 계속 유지됩니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종교마다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가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고향으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고향으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은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수녀는 말한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부터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고린도후서 5:1-3)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흠으로 빛은 그 사람의 몸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상을 입을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40, 49)

사도 바울은 인간존재를 순수하게 사멸하는 흠덩이, 즉 장막적 존재라고 보았고, 사람이 영생하거나 새로운 영적 몸을 덧입는 것은 인간 자신 속에 있는 불사하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새롭게 덧입혀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종교마다 영혼이나 죽음에 대해 이해와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치된다.

4. 빙의 현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로 빙의(憑依) 현상을 들 수 있다. 빙의란 어떤 영혼이 사람에게 침투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한다. 빙의 현상만큼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질병도 없을 것이다. 육신을 잃은 영혼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가 머물기에 적당한 사람이나 장소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 숨게 된다. 그로 인해 영혼이 깃든 장소는 흥가가 되

마련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귀신에 홀린 상태가 되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 영혼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달라붙게 되면 그 사람은 발작을 하거나 황포한 성격으로 변하여 폐인이 되기도 한다. 외롭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영혼이 갈 곳 없는 귀신이 되어 인연에 따라 들러붙어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빙의’ 라고 말한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자신의 빙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미쳐 있었다고 한다. 방송가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떠돌아 다녔다. “알코올 중독이다, 미쳤다…….” <전원일기>의 홈페이지에는 “일용 엮니가 이상해요, 어디가 아픈가요”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불행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찾아왔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4년 전에 그녀의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아침, 아침식사를 맛있게 먹은 시어머니는, 그녀가 직접 각분을 쓴 모노드라마가 사흘 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될 예정이었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포스터를 몇 장 들고 외출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10분이나 지났을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전화벨 소리의 주인공은 기사 아저씨였다. 길 건너 주유소에 있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였다. 주유소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 머릿속에서 쏟아진 두부 같은 피가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녀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한 끼에 만두 다섯 개씩 하루에 두 번 먹었다고 한다. 한 달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말에 남편은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모든 검사를 다 받아 봐도 갱년기 우울증일 뿐 그리 심각할 게 없다고 하여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그녀의 증상은 나아질 줄 몰랐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사촌오빠는 한국을 빛낸 10명의 위인으로 꼽힐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명한 의사이다. 그녀를 진찰했던 의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사촌오빠는 ‘포제션(possession)’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포제션이란 영혼의 영향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질병으로, 그대로 두면 폐인이 되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 아직까지 과학적인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망 있는 핵의학박사가 현대 의학으로는 못 고친다고 하니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러던 중 김수미 씨는 『빙의』 라는 책을 읽고 저자 묘심화 스님을 찾아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눈에 빙의가 아직 안 빠졌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시어머니 사진이 왜 자기를 노려보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떠돌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빙의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해 편안히 보내드리면 시어머니의 사진이 노려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이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며느리의 몸에 빙의되었던 것이다. 묘심화 스님이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을 불러낸 뒤 달래서 보내는 퇴마 의식을 행한 이후부터 사진 속의 시어머니

는 웃고 있었다고 한다.

빙의는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자가 실험하기도 어려운 현상이다. 명망 있는 핵의학박사도 김수미 씨의 병이 포제션이라고 판정했지만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은가. 하지만 김수미 씨의 경우처럼 시어머니의 영혼이 빙의된 이후 평소의 행동과 현격하게 달라졌다는 것은 주위 사람 누구나 인정했던 사실이다. 빙의가 일어나고 제령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현대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할 수는 없다.

시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빙의된 이후 그녀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묘심화 스님에 의해 시어머니의 영혼이 그녀로부터 분리된 다음 그녀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점, 이를 주위 사람들이 몇 년 간에 걸쳐 함께 목격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빙의 현상 역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편견을 깨뜨려 주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례는, 최면치료 전문가 김영우 박사가 어느 다중인격 장애여성을 치료하면서 겪은 경험이다.

다중인격 장애 증상을 보이던 여자환자의 최면치료를 막 끝내려할 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굵고 거칠게 변하더니 “왜 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며 불만스럽게 묻는 게 아닌가. 놀란 김 박사가 “누구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는 정식이예요. 이 누나가 좋아서 같이 있죠. 아저씨가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안 불러주는 게 화가 나서 직접 나왔어요.” 김 박사는 신기하다고 생각해 “몇 살이야?” 하고 물으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천연덕스럽게 “열일곱이요. 나도 이제 어른이라구요” 라며 킬킬거리고 웃기까지 했다. 그래서 김 박사는 내친 김에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하고 물으니 “히히……오래되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 박사는 정식이라는 영혼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사정인즉슨 정식은 열일곱 살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갑자기 죽은 사실에 화가 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울과 불안이 가득했던 이 환자의 내면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치료를 끝낼 시간이 다 돼서 김 박사는 그를 다시 환자의 내면으로 들어가 암전히 있도록 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깨어난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고 진료실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1,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뛰어 들어와 말했다. “원장님, 바깥 환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게 했더니,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리 약간 건들거리는 10대 청소년의 걸음걸이와 표정, 몸짓으로 변해 있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또 나왔어요. 저 정식이예요. 들어가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눈을 깜빡거리며 10대 청소년처럼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열일곱 살짜리 남자아이였다. 김 박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정식이라는 존재를 달래 들여보내고 환자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후 치료를 마쳤다.

인용된 사례는 다중인격장애 환자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식이의 주장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죽은 그의 영혼이 환자에게 씌워진 것이라면 이 증상은 ‘빙의’ 내지는 ‘귀신들림’ 이다. 빙의 현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 안에 침투하여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특정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내 안에 누군가 들어와 있다” ,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 ,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호소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단순한 망상이나 환각으로만 판단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조울증의 진단기준에 따라 약물치료만 할 뿐이다.